

한말 식민지기 東萊郡 機張 薇洞 南平 文氏 家門의 대부 행위와 그 내용

姜周成*

- | | |
|---|-------------------------------------|
| I. 머리말 | IV. 1925년 이후 1935년까지 대부
활동과 그 내용 |
| II. 남평 문씨 가문의 경제 기반과 대부장부 | V. 맺음말 |
| III. 1906년 이후 1925년 이전까지 대부
활동과 그 내용 |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동래군 기장 미동 남평 문씨 가문의 대부장부 『各人捧給帳』과 『九山記』에 주목하여 한말 식민지기 이들 가문의 대부 행위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대부행위의 중심은 문진호로서 이 연구는 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 그의 가문에서는 토지 축적에 힘을 기울이다가 19세기 말에 문진호에 이르러 임야 축적 및 상업활동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한말의 객주를 통해 위탁판매를 시작하면서, 초량 객주들의 緣網을 통하여 대부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어 상회도 설립하는 등 다각도의 경제행위를 한다.

주요 거래 대상에 객주뿐 아니라 당시 地域有志 또는 사업가들이 포함된 사례는 이 시기 향반 가문의 상업 행위와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조선 후기 주변부였던 기장지역에서 개항 이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향반 가문의 실태를 분명히 하는 한편 식민도시의 배후지로 변화하는 새로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려 하였다.

주제어 : 南平 文氏, 各人捧給帳, 九山記, 文鎮鎬, 대부업

*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학예사

I. 머리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남 연안지역은 개항 이후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출현하였다. 여기에는 개항장 동래와 인접한 기장 지역도 해당한다.¹⁾ 실제로 조선왕조에서 단 한 명의 문과급제자도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적이었던 기장에서,²⁾ 언어학자이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저명한 金料奉(1889~?)과 그의 사촌인 아나키스트 金若水(본명 金料奎, 1893~1964), 친일행위로 잘 알려진 李夏榮(1858~1929) 그리고 포항종합제철의 창립자인 朴泰俊(1927~2011) 등 근현대의 중요 인물들이 연이어 출현한 것도 개항장의 배후지로 변모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기장 철마의 미동에 세거한 남평 문씨 가문은 이러한 변화를 대표한다.³⁾ 조선 후기 기장의 향반들은 문과 급제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관직자 역시 거의 배출하지 못한 것에서 뒷받침되듯이 다른 지역의 향반들과 비교하여 위세가 크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장의 중요 향반 가문들은 특히 철마 일원에 집중적으로 세거하면서 자신들의 緣網(사회적 네트워크)을 공고하게 구축하여 향반으로서 사회 지위와 위세를 유지하여 나갔다. 남평 문씨 미동 집안도 이 중 하나인데, 이 가문은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식민지기에 걸쳐 다채로운 경제활동을 펼친 경남 연안 지역의 많은 향반들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향반 가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을 소장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 한말 이후 끊임없는 부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데 놀랍게도 미동의 남평 문씨 가문에는 이 같은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적지 않은 고문헌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들 기록물들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 연구를 거쳐 현재 그 일부가 출간된 바

1) 기장은 1895년 동래부 기장군으로 개명되었다. 이후 1914년 기장군을 폐지하고 동래군에 귀속시켜 기장면·장안면·일광면·정관면·철마면 5개 면으로 병합·축소되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東萊區誌』, 부산광역시 동래구, 1995, 410~417면.

2) 기장은 전국 330개 군현 중 충청도의 비인·회인, 평안도의 강서, 함경도의 갑산과 함께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다. 에드워드 와그너 저, 이훈상·손숙경 역,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381면.

3) 미동은 철마면 웅천리에 속한 마을이다.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철마면지편찬위원회, 2007, 73~81면.

있다.⁴⁾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호구자료와 족보뿐 아니라 친족 조직과 관련한 문중 계·재실 관련 기록물, 향반 엘리트들 사이의 緣網을 비롯하여 토지나 임야의 매매와 집적, 부산항 객주를 통한 상거래, 상회 설립 및 농장 경영 등과 관련된 것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19세기 중엽부터 식민지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한 가문에서 다채로운 경제 활동을 벌인 사례가 경남 일원에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 기록물이 전승되는 것은 부산 일원으로 국한할 경우 가장 미동의 남평 문씨 가문이 현재로는 유일하다. 특히 이들 문서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굴 이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출간된 덕분에 이 연구의 초점인 한말 식민지기 향반 가문의 대부 행위와 그 내용을 좀 더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흔히 고리대로서 통칭하는 한말 식민지기 대부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⁵⁾ 그리하여 향반이나 향리들이 개항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근대 地主經營의 고리대 자본을 활용한 연구가 나올 수 있었다. 이들은 한말 식민지기 양반 출신 재지 지주들의 다양한 자본축적 방식과 향리 계층들의 성장을 통한 지주경영의 실태와 더불어 대부 행위가 자본 축적에 운영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⁶⁾ 한편 금융업자와 대부인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일련의 연구들도 나왔는데, 이들은 식민지기의 한국의 금융시장이 특수금융기관 및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금융시장과 민간의 자금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금융시장으로 분리된 실태를 밝혀주고 있다.⁷⁾ 그 외에 고리대의 형태 및 거래 양상에 대한 연구들도 주목된

4) 출간된 총서는 다음과 같다. 이훈상, 『19세기 가장군 미동의 남평 문씨 향반 가문의 경제 기반과 한말 식민지기 새로운 경제 활동』,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7; 이훈상·손숙경, 『조선후기 이후 식민지기 가장군 미동의 향반 남평 문씨 가문과 이들의 사회 문화적 위상』,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7.

5) 이 연구에서 고리대라는 용어 대신 대부 행위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는 이 시기 금전의 대부와 관련하여 고리대라는 범주에 포섭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례를 포섭하기 위함이다.

6) 홍성찬, 「韓末・日帝下の 地主制研究-江華 洪氏家の 秋收記와 長冊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33, 1981; 「19세기・20세기 초 향리층의 사회경제 동향-곡성 정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24, 1998; 「韓末・日帝下の 地主制 研究-寶城 梁氏家の 地主經營과 그 變動」, 『동방학지』 114, 2001; 김건태, 「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동-한말 일제하 나주 박씨가의 농업경영」, 『대동문화연구』 44, 2003; 박천우, 「韓末 日帝下の 地主制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3.

7) 이영훈·조영준, 「19世紀 末-20世紀 初 서울 金融市場의 特質-南大門 一帶의 '日收' 金融을 中心으로」, 『경제논집』 44, 2005; 이명휘, 「금융제도의 형성과 발전」, 이대근 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다.⁸⁾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일련의 성과를 배경으로 한 가문의 대부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전개 과정 및 이것과 지역사회와의 복잡한 층위에 논의를 집중하려 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緣網을 바탕으로 계층을 중요 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상권과 같은 순수한 경제적 영역을 넘어선다.⁹⁾ 이를 위하여 이 가문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부장부 『각인봉급장』과 『구산기』를 중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1906년부터 1925년까지 작성된 『각인봉급장』의 경우 임·유치와 객주와의 상거래, 상회설립 등 여러 경제활동을, 1925년부터 1935년까지 작성된 『구산기』는 동래읍내 장 변거래와 起債 및 농장·지주경영 등을 보여주는 회계 장부들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기간은 한말에서 식민지기, 정확하게는 1906년부터 1935년까지 30년 동안이다. 이것은 곧 『각인봉급장』과 『구산기』에 거래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기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각인봉급장』의 작성 배경 및 1906년부터 1925년까지의 대부 내용을 검토하려 하는데 이에 앞서 이 가문의 경제 기반 등을 먼저 개관할 예정이다. 이어 『구산기』를 통해 1925년부터 1935년까지의 대부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개항 이후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장 향반의 다채로운 경제 활동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것은 배후지로 포섭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II. 남평 문씨 가문의 경제 기반과 대부장부

1. 경제 기반과 새로운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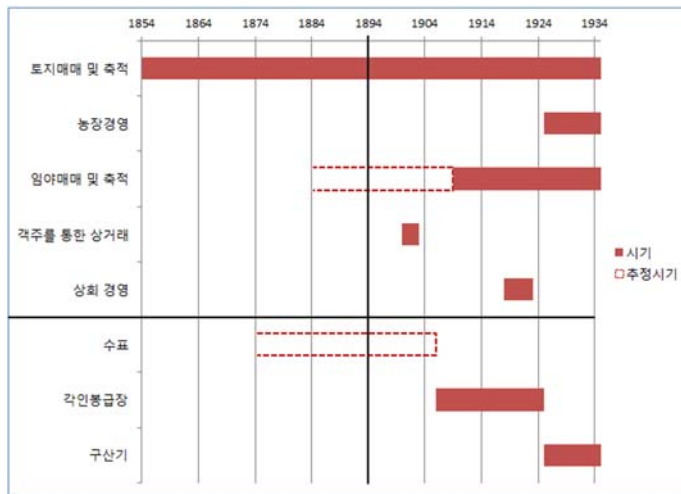
기장 미동의 남평 문씨 가문은 토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펼쳐 나갔다.

나남출판, 2005.

8) 서길수, 「開港後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研究(Ⅱ)」, 『서경대 논문집』 15, 서경대학교, 1987.
 9) 기장지역 商圈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있다. 김동철, 「東萊銀行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9, 2001; 「18세기후반-20세기전반 기장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2010; 차철욱, 「구포 [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9, 2001.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緣網을 바탕으로 계층을 복잡한 층위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장이 부산부의 배후지로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을 비롯한 개항장은 기존의 재래시장이 재편되면서 새로운 상품 유통망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의 시장권은 청일전쟁 이전에 이미 경상도와 전라도를 포괄하였고 이후에는 부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면서 상업도시로 변모되어 갔다. 부산부에 인접한 동래군과 기장 지역도 마찬가지다.

미동의 남평 문씨 가문도 그중 하나인데 다양한 경제 활동의 시도나 경영 다각화 노력은 전승 문서나 문서 성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동 남평 문씨 가문의 전승 기록물을 분석하여 경제활동의 다양한 층위와 변화를 시계열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미동 남평 문씨 가문의 전승 기록물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층위와 시계열에 따른 변화¹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평 문씨 가문의 경제활동은 적어도 1850년대부터는 토지 집적에 집중되고 있었다. 특히 한말의 토지 집적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집적된 토지는 1894년 이후 새롭고 다채로운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대부 운영자금의 근간이 되었으며 1925년 이후 운영한 농장 경영에도 이용되었다.

10) 미동 남평 문씨 가문에 전승되는 경제관련 문서 중 가장 빠른 것은 1854년에 작성된 명문이며, 이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제활동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인물은 남평 문씨 가문의 文鎭鎬(1883~1960)이다. 향반 가문 출신인 그는 상업을 경시하는 통상적인 양반 가문들과 달리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문진호의 새로운 모습은 부국을 위하여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결성된 대한자강회의 동래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견고해졌을 것으로 믿어진다.¹¹⁾

이 가문은 경제 기반이 된 토지나 임야 축적 외에 새로운 경제 활동도 병행해 나갔다. 1900년대 문진호는 객주의 위탁 판매를 통한 상업 활동에 뛰어 들었다. 식민 시기에는 三洋商會의 설립과 운영에 집중 투자하였다. 그렇지만 대부 활동은 가장 오랫동안 집중한 경제 활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통감부 체제에서 高利의 소비대차가 확산되면서 고리대업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문진호의 대부 활동은 한말 식민시기의 새로운 경제 변화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시기 배후지 향반 지주의 다각적 경제 전략을 살피는 데 유익하다.

이 시기는 근대적 금융제도가 도입·정착되고 금융기관이 발달하며 시장 운용을 위한 기법과 능력들이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식민지기 금융시장은 특수금융기관 및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금융시장과 민간의 자금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금융시장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다.¹³⁾ 농업자금을 대부하는 농공은행은 상층의 지주가 아니면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지점은행 또한 재조 일본인의 대규모 경영을 위한 용자에 국한되었던 까닭에 영세한 조선인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평 문씨 가문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이중 구조 아래 다수의 중·하층 농민이나 소상공업자들이 생계자금과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별도의 사금융 시장에도 뛰어 들었다. 당시 이와 같은 사금융 시장은 제도금융권을 보완, 대체하는 역할 때문에 총독부의 단속과 정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다. 요컨대 이 가문은 대부 활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해 나갔다.

11) 이훈상, 앞의 2017 책, 17면.

12) 전우현, 「日帝强占初期 判例에 나타난 상행위(객주업)상 高利貸의 역사적 평가」, 『법사학연구』 35, 한국법사학회, 2007, 135면.

13) 이명휘, 앞의 2005 책, 223~229면.

2. 대부장부 『各人捧給帳』과 『九山記』의 체제와 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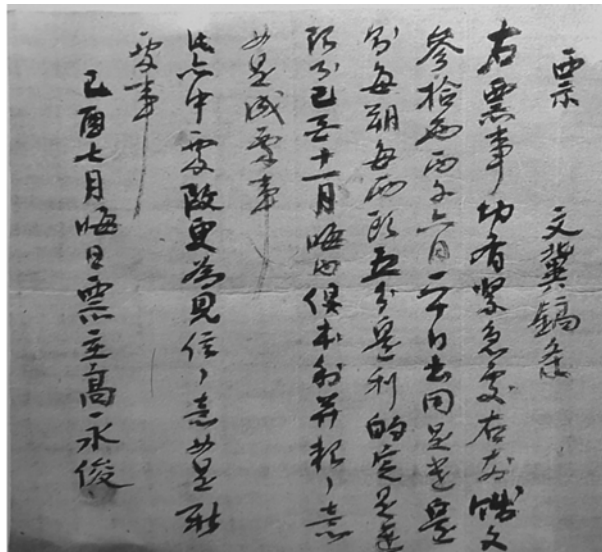
문진호가 작성한 대부장부 『각인봉급장』과 『구산기』는 한 가문과 지역사회에서 전개된 대부 활동을 밝히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각 장부의 거래 상황

장부명	기간	대부건수	채무자수
『각인봉급장』	1906.4.27. ~ 1925.12.1.	460	160(126)
『구산기』	1925.5.27. ~ 1935.11.26.	455	274(217)

*괄호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06년 4월부터 작성한 대부장부 『각인봉급장』은 이 시기부터 남평 문씨 가문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부 행위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그 전부터 돈을 빌려주었음을 알려주는 수표도 찾아진다(<그림 2> 참조). 다만 수표를 작성할 당시 문진호 가문은 대부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그림 2〉 1885년 7월 30일 수표: 수급자 文翼鎬¹⁴⁾

반면 『각인봉급장』을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면 대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알려준다. 『구산기』는 『각인봉급장』에 이어 1926년부터 작성되어 1935년 11월로 끝이 난다. 다만 이것이 이 가문에서 더 이상 대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림 3〉『각인봉급장』 대부거래 부분

〈그림 4〉『구산기』 場邊거래 부분

먼저 『각인봉급장』은 117면에 걸쳐 대금 관련 사안을 기재하고 있다. 일정한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통상 면당 한 명의 채무자를 기록한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地名이 있다. 한 줄은 세로 총 4칸으로 구분하여 첫 번째 칸은

14) 文冀鎬는 문진호와 동일인물이다. 이훈상, 앞의 2017 책, 140, 156~158면

대부 날짜를 기록하고 두 번째 칸은 대부 내용과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 칸은 채무자가 돈을 갚은 날짜, 네 번째 칸은 入자를 쓰고 그 아래에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표기를 보면 금액부분은 丿 표시로 강조하고 있으며, 거래가 끝난 경우 ㄱ, ㄴ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한편 『구산기』는 『각인봉급장』과 달리 공책이 아닌 미농지에 작성하였으며,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줄로 엮어 놓은 형태이다. 장부에는 ‘本帳記入’이라고 적힌 첩지 1장이 붙어있으며, 일반 대부거래의 내용에는 ‘移本帳’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이를 통해 대부 내용을 바로 기록하기 보다는 첩지에 대부 내역을 간단하게 작성한 후 장부에 옮겨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산기』는 일반 대부거래 뿐만 아니라 場邊과 동래은행 및 금융조합과의 起債 기록 2건 등 다양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장부의 특성상 대부 내용도 기록하지만 여기에 자신이 빌린 돈의 내용을 함께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구산기』는 『각인봉급장』과 형식은 비슷하지만 장변을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재한 것은 다른 점이다. 장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명 ② 지명 ③ 대부 날짜 ④ 상환기한 ⑤ 대부금 ⑥ 납부현황 ⑦ 보증인 ⑧ 매 상환금. 특히 상환기한을 長尺(5일 간격으로 20회), 尺(5일 간격으로 10회), 五奉(한달 간격으로 5회), 月奉(한달 간격으로 10회), 一年尺으로 구분하여 납부가 되면 도장을 찍어 표시한 것은 주목된다(<그림 4> 참조). 이것은 기존의 다른 대부 장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두 장부 성책은 이렇듯 1906년부터 1935년까지 30년의 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어 이 시기 남평 문씨 가문의 대부 현황을 살펴는데 큰 도움이 된다.

Ⅲ. 1906년 이후 1925년 이전까지 대부 활동과 그 내용

1. 문진호와 객주와의 관계

문진호가 대부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 객주들과의 거래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동래상업회의소 초대 총장으로 활동했던 金永奎와의 거래도 그중

하나이다. 김영규는 초량 객주를 대표하는 사람 중 한명인데, 1906년 9월에는 대한자강회 회원이었으며, 1911년 12월에는 부산객주조합 총무를 맡고 있었다.¹⁵⁾ 이 외에 남평 문씨 가문의 위탁 판매를 보여주는 전승 문서 중에는 초량 객주 金星汝의 회계문기도 확인된다.¹⁶⁾ 이는 남평 문씨 가문이 김영규와 김성여를 통해 객주와 위탁 판매를 한 사실을 보여주며, 이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대부 행위와 관련된 경험도 쌓아간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이렇듯 문진호는 객주들과 유통망을 형성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았으며, 이를 통해 객주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 네트워크로 들어가 그 경험을 대부업·금융업에 이용한 것이다. 1906년 대부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는 익숙하지 않아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 둘째 동생 문창호(1895~?)¹⁸⁾ 및 먼 친척인 文玟鎬(?~?)¹⁹⁾와 함께 뛰어든 것도 이러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진호와 객주의 거래 내역은 『각인봉금장』에 보이는데, 타인에게 문진호 자신의 돈을 맡기는 任置 또는 문진호 자신이 남의 돈을 맡는 留置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

15) 김승, 「한말·일제하 동래 지역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지역과 역사』 6, 부경역사연구소, 2000, 79~82면.

16) 이훈상, 앞의 2017 책, 114면.

17) 객주 중에서 신용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금융업을 주로 하는 객주를 환전객주라 한다. 이들은 각지의 객주와 연락하여 예금이나 대부 또는 어음 할인 등 금융업을 행하고 의뢰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불하거나 수수료를 받았다. 류승렬, 「조선후기 객주의 성장, 분화와 상업수세의 변천 추이」, 『강원사학』 18, 강원사학회, 202~203면.

18) 문창호와 관련해서는 1924년 『開闢』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한동안 元山에서 강연도 못 잘하고 사회일도 좀 하는 척하던 金泰淳 여사는 **고리대금업자 文暢鎬**가 홀작 반해서 본처 이혼까지 하고 다려다가 안방 拘留를 해놔코는 文暢鎬군이 엇지 벽창호 노릇을 하는지 그 집 門窓戶 틈으로 잇다금 나오는 金씨의 풍금소리만 들리고 그 눈 우묵한 얼굴은 볼 수 업스며……”(『開闢』, 1924.12.1). 여기서 문창호를 고리대금업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남평 문씨 가문이 대부업에 깊게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19) 文玟鎬 또한 대부업에 관여했던 사실은 辛學容의 차용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신학용의 대부 사실은 『각인봉금장』에서 확인되는데, 그는 1909년 10월 2일 10엔을 빌리며 매월 4푼 이자로 3개월 안에 갚기로 하여 1개월 후인 11월 2일 1개월분의 이자를 포함하여 14엔을 갚고 있다. 이 때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隆熙 3년(1909) 10월 2일 긴히 사용할 곳이 있어 돈 10엔을 내어 쓰되, 이자는 매월 4푼으로 작정하여 3개월을 한도로 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니, 만일 기한을 넘어 갚지 않으면 매달 한 냥에 6푼에 이자로 갚기로 한다.” 문정호는 이 차용증에 증인으로 기재되고 있다.

에서 尹元一은 주목된다. 윤원일은 초량 객주로, 대한자강회 동래지회원 73인 중 한명이다.²⁰⁾ 문진호는 그에게 총 48엔 6전을 임치하였다.²¹⁾ 두 사람의 거래는 문진호가 객주와의 거래를 통해 대부업의 체계를 점차 습득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당시 객주는 단순한 상품 거래 중개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본을 직접 상업자본으로 운용하는 도매상으로 발전해 나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진호는 객주들과 거래하면서 임치와 유치의 대부 행위들을 습득하면서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1919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삼양상회의 설립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²⁾

<그림 5>에서 제시했듯이 삼양상회를 설립하고 1년이 지난 1920~1922년까지의 대부 추이가 이전과 비교할 때 현저히 줄어든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시기 장부상에도 임치와 유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상회에서 상품 중개만 한 것이 아니다. 대부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도 얻는 한편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을 대부자금으로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얻기 때문이다.²³⁾ 하지만 1920년대 초 경기침체로 많은 상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²⁴⁾ 삼양상회도 결국 문을 닫았다.

20) 차철욱, 「일제강점기 부산상업(공회)의소 구성원의 변화와 '釜山商品見本市」, 『지역과 역사』 17, 2005, 306면.

21) 문진호는 1908년 7월 2일 181년을 윤원일에게 任置하였고, 윤원일은 이 중 일부를 동년 7월 22일에 김백여에게 대부하였다. 이후 김백여는 8월 8일에 대부한 금액을 윤원일에게 갚았다. 문진호는 자신이 임치한 돈의 흐름을 『각인봉급장』의 윤원일과 김백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22) 문진호는 사적 대금업을 운영하면서 1919년 초 무역업을 주로 하는 삼양상회를 설립한다. 경영은 文鎭鎬, 金鍾復, 文暢鎬가 하였다.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향토부산』 12, 1995, 58~59면. 그러나 연양의 유력 향반 가문 출신인 신필수(영산신씨)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문진호와 김종복에게 직접 상회 설립을 권하고 오태환을 동업자로 추천하였다. 松鶴 辛弼錫 自叙傳, 172-192면. 이에 따르면 별도의 지배인을 두지 않은 삼양상회에서 문창호는 경영자라기보다는 지배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필수는 삼양상회의 설립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각인봉급장』에 50엔을 유치한 연양택은 바로 신필수 집안을 지칭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50엔은 삼양상회의 설립을 위한 상업자금이었을 것이다.

23) 홍성찬, 「일제하 서울 종로상인의 자산운용-1910, 1920년대 수납상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7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86~87면.

24) 홍성찬의 연구에 따르면 수납상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수납상회의 대부금 운용은 1920년대 중반이 되는데 그 이유는 수익률 하락 때문이다. 1910년대 말까지 20~30%를 유지하던 수익률은 1920년대에 10% 정도로 하락하였다. 홍성찬, 앞의 2015 논문, 104면. 1919년 초 문진호가 설립한 삼양상회의 수익률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수납상회와 비슷했을 것으로

이처럼 문진호는 객주들과 거래를 통해서 대부장부의 작성 등 대부 행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였고, 또한 당시 지역의 상업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후 상업자본을 운영하는 도매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대부의 규모와 추이

<그림 5>는 『각인봉급장』의 각 연도별 대부횟수와 대부금 총액을 그래프화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 거래인수는 160명이지만, 중복되는 34명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26명과 거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과 이루어진 총 거래건수는 460건이다.²⁵⁾ 이를 연도별 거래 횟수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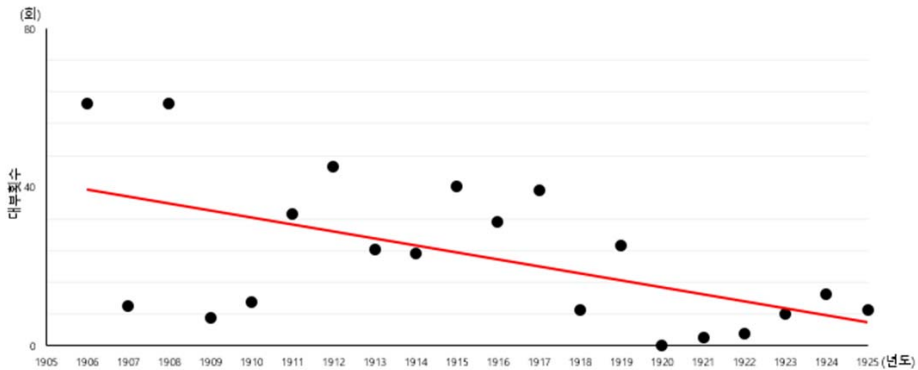
연도별로 거래 건수에 차이는 있지만 <그림 6>에 따르면 거래 건수가 하락추세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난 1915년도의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5>에 따르면 1915년 대부금 총액은 다른 연도와 비교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대부 건수를 나타낸 <그림 6>에는 같은 시기에 <그림 5>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1인당 대부금액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14년과 1915년의 대부 내역을 살펴보면, 1914년에는 18명이



〈그림 5〉 『각인봉급장』의 각 연도별 대부금 총액

추정된다.

25) 460건 중 2건은 현물거래이고, 3건은 연대 미상이라 제외하였다.



*실선은 추세선이다.

**점은 각 년도별 대부횟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6〉 『각인봉급장』의 각 년도별 대부 건수

374엔 84전을 대부했지만 1915년에는 20명이 1563엔 69전을 대부하여 대부 건수에 비해 대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金容祚와 上谷宅은 각각 625엔과 489엔 40전을 대부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을 대부하고 있다. 이렇듯 남평 문씨 가문의 대부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었지만 대신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대부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인봉급장』의 대부 건수 중에는 ‘원금 대 이자 비율’을 보여주는 177건 (41%)의 사례가 있다. 여기서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는 표현 대신 ‘원금 대 이자율’이라고 쓴 것은 기간 개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⁶⁾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들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원금을 그대로 상환하거나 대부금보다 상환금이 많은 경우들이다.

26) 기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각인봉급장』에 원금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상환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2〉『각인봉급장』 ‘원금 대 이자 비율’ 분포

장부명	구분	이자	대부건수
『각인봉급장』	日別	6錢	3
		7錢	7
		9錢	1
	月別	1分5厘	1
		1分8厘	4
		2分	10
		2分1厘	3
		2分2厘	1
		2分4厘	1
		2分8厘	1
		3分	134
		4分	10
		5分	1
	합계		177

개항 후 사채를 이용할 경우 금리는 통상 월 3푼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월 5푼이나 6푼 또는 그것을 초과하였다.²⁷⁾

남평 문씨의 경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월 3푼의 금리가 전체 75%를 차지하며, 이보다 낮은 금리까지 합치면 87%가 3푼 이하의 저리로 대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총 11건의 일별 거래도 모두 12전 이하의 저리로 대부되고 있다). 문진호의 사례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부산의 객주들도 대체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특정인물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3번 정도의 거래를 한 사람은 대부분 3푼의 이율을 받았으나, 거래가 3번 이상의 경우, 혹은 돈의 액수가 100엔 단위가 넘었을 때, 이율이 3푼 이하인 경우도 있다.

27) 전우현, 앞의 2007 논문, 113~116면.

3. 거래대상

거래대상의 경우 126명의 채무자 중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모두 9명이다. 이들은 앞서 살펴 본 초량 객주 윤원일과 김영규를 포함하여 文龍鎬, 鄭鎭浩, 金容祚, 金在淡, 李起汀, 金正淇, 金永佑이다. 이 중 문용호의 경우 남평 문씨 가문의 종손으로 일찍부터 향교에 출입하여 1893년에는 향교의 掌議를 맡았다.²⁸⁾ 이어 1924년 4월에는 동래군 철마면 협의회원, 1928년 4월에는 철마공립보통학교의 학무위원에 선임되었다. 특히 대부장부를 작성한 문진호와는 각별한 사이로 문중의 행사나 사업에 함께 참여하였다. 두 사람의 긴밀한 협조는 文淵亭의 건립으로 결실을 맺었는데,²⁹⁾ 이것은 이후 철마의 남평 문씨 종족의 상징 자본의 구심점이 되었다³⁰⁾.

정진호는 측량문제로 자주 왕래하였다. 그는 1910년대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남평 문씨 가문은 경제적 기반으로 토지와 임야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토지측량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면서 정진호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인봉급장』에 기록된 동래부의 隆興測量所는 바로 정진호와 관련된 곳이다. 문진호는 대부금을 상환받기 위해 이곳에 자주 방문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³¹⁾

김용조는 동래면 원동의 지주 출신으로, 동래저축조합에서 조합장과 주임을 겸하였고, 1916년에 설립된 경남인쇄(주)와 1918년 동래은행에서 각각 감사를 역임했으며, 1922부터 1924년까지는 취체 직무에 선임되었다.³²⁾ 또한 1926년 1월에는 동래 군수

28) 이훈상·손숙경, 앞의 2017 책, 25면.

29) 문연정은 선조 文汝郁의 뜻을 계승해 후손들이 세운 것으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巨文山 虹流洞 溪谷 자락에 자리 잡은 亭子다. 설립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여옥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927년 4월 16일에 가문의 후손 문용호를 중심으로 門徒 50여 명과 지역 유림 265명이 처음 修禊한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南平文氏東萊北面門中, 『文淵亭과 漢詩選 400여 수의 再照明』, 南平文氏東萊北面門中, 2017, 3면.

30) 손숙경·유현, 『조선후기 기장 웅천의 남평 문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 석당학술원, 2009, 22~24면.

31) 『각인봉급장』에 기입된 鄭鎭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實給次 錢 一天三百兩 內 五百兩을 己酉 二月 二十四日 南門 內 隆興測量所에서 卽急 有 封上”. 한편 용흥측량사무소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조 된다. 손숙경, 「식민지기 醫生 김태일의 생애와 先代의 동래 이주」, 『지역과 역사』 43, 2018, 120면.

32) 김동철, 앞의 2001 논문, 59~60면.

金翰植(1923~1927)이 창립한 東萊洋襪生産販賣組合(1923~?)의 경영권을 위임받았다. 이 외에도 포목상을 경영하고, 제1기 면협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19년에는 안희제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釜山例月會의 회원이 되기도 하였다.³³⁾

『동아일보』 기사에 김재담은 1931년에 동래군 철마면 면협위원으로 당선되었다. 그 명단에는 문진호와 김영우도 있는데, 이는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면협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것을 보여준다.³⁴⁾ 그런데 김재담과 문진호의 인연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각인봉급장』에 1915년 2월 8일 김재담이 15엔을 빌린 후, 상환은 面書記 급여에서 계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 무렵부터인 것 같다. 그리고 김영우는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철마면장을 역임했는데 문진호는 그에 앞서 1919년에 철마면장을 역임하였다. 두 사람이 연이어 철마면장을 역임한 사실은 이들의 관계를 알려준다.

끝으로 이기정과 김정기(1873~?)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기정의 경우는 同知敦寧을 역임한 사실만 확인되며,³⁵⁾ 김정기는 철마면 林基里 이장과 향교 장의를 역임한 사실 정도만 확인된다.³⁶⁾

1925년까지 거래 관계를 맺은 126명의 채무자 중 현재까지 확인된 인물은 9명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기장 및 동래지역에서 이들의 사회적 위상으로 미루어 대상과의 거래관계가 순수한 경제 관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또한 조선후기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 행위에서 지역사회에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저리로 대부하는 인정주의 방식보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가까운 친인척에게도 엄격한 경제적인 원칙을 적용해가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³⁷⁾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전체 중 일부이지만,

33) 예월회는 조선인 상공업의 발달과 조선인 교육개선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의 추진기구이며 김용조는 1923년 제1기, 1926년 제2기 동래면협위원에 잇달아 당선되었다. 홍순권, 「1920~1930년대 동래의 지방선거와 조선인 당선자들」, 『한국근대사연구』 5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139면.

34) 『東亞日報』, 1931.6.7.

35) 이기정의 행적은 아들 李康瓚을 통해 확인된다. 이강진은 章陵參奉과 중추원의관을 역임했다. 「朝鮮紳士大同譜」 30,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36) 「朝鮮紳士大同譜」 363,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37) 웅천의 큰집 종손인 문용호는 1911년 3월 15일 100원을 상환기한 1년으로 이자율을 3번리로 하고, 논 7두지를 전당하여 돈을 빌린다. 다음해 1912년 3월 29일 1년 이자 30원을 냈고 다음해 1913년 3월 30일에 계약대로 1년 이자로 30원을 지불한다. 이어 같은 해 7월 26일과 9월 13일에 원금을 50원씩 나눠 갚는다. 이를 통해 친인척에게도 이자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에게도 일상에서 어렵지 않은 일이었음도 말해준다.

Ⅳ. 1925년 이후 1935년까지 대부 활동과 그 내용

1. 場邊의 거래 내용과 그 특징

장변은 시변 또는 장질이라고 하는데 남평 문씨 가문에서 이를 주도한 인물은 문진호와 둘째 아들 文載淳(1911~1945)이다.³⁸⁾ 『구산기』 장변 기록에 따르면 장시는 2일과 7일에 열렸으며, 거래도 이날 이루어지고 있다.³⁹⁾ 일제는 한국 시장을 통제하고 상권과 유통망을 장악할 목적으로 시장조사사업(1913~1917)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14년 9월 조선총독부령 제136호로 「市場規則」을 공포하였다. 시장규칙이 공포된 후, 동래군 관내 장시 중 문진호와 문재순이 주로 장변을 놓은 지역은 동래읍내가 44건 기장 지역이 54건이다.⁴⁰⁾

38) 이는 장부에 문진호와 文載淳의 확인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두 도장 외에 穆堂이라는 도장도 보이는데 이는 문진호의 호이다. 손숙경·유현, 앞의 2009 책, 24면.

39) 1926년 2월 21일로 기재된 金昌老의 거래 기록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지역을 설정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당시 동래군 관내 장시의 거래일은 다음과 같다. <표 3> 동래군 관내 보통시장(1호 시장)의 거래 규모

시장명	개시일	위치	시장명	개시일	위치
東萊	2, 7	동래면 수안동	機長	5, 10	기장면 동부리
龜浦	3, 8	구포면 구포리	左川	4, 9	장안면 좌천리
下端	1, 6	사하면 하단동	送亭	5, 10	철마면 송정리

출전: 김동철, 앞의 2010 논문, 1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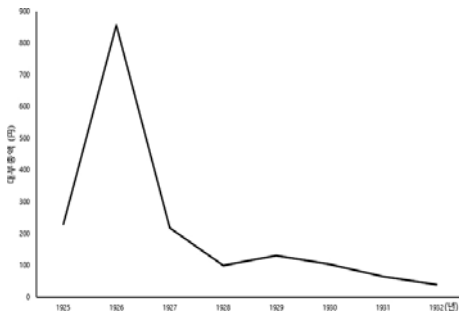
40) 장변 거래가 있었던 인물들의 거주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총 인원은 중복인물을 포함하여 모두 69명이다. 『구산기』에 기록된 68명과 비교하면 1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손두만이 鄉校와 校洞에 중복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거주지는 첫 대부거래가 있던 1928년부터 1931년 5월까지의 향교로 기록되고 1931년 12월과 1932년에는 교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손두만이 향교에서 교동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괄호는 중복된 사람을 제외한 인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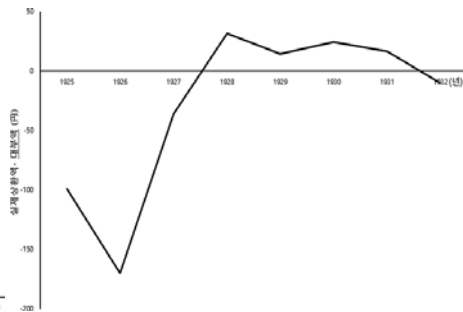
8>과 같이 그 이자율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시기가 내려올수록 장변활동은 체계화 된 것으로 보인다. 개월수가 오봉에서 월봉으로 증가하면 25%에서 50%로 두 배가 증가한다. 당시 한 派收 동안의 금리가 대체로 1~2% 수준이었으므로, 이를 1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6~12%, 1년 단위로 환산하면 72~144%로 계산된다.⁴¹⁾ 이것과 비교하면 『구산기』의 장변 이자율은 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장변 실제상환율(%)



〈그림 10〉 장변 각 연도별 대부총액



〈그림 11〉 장변 각 연도별 순수익

41) 조영준, 「경제사로 읽는 사금융과 이자제한」, 『경제교육』 128, 2014.

<그림 9>의 그래프 상 실제상환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특히 1928년과 1930~1931년은 100%로의 상환율을 보인다. 하지만, 그 금액이 <그림 10>과 같이 대부금액이 1926년도에 856엔인데 이에 비해 3년 총 대부금액이 268엔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연도별 상환율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문진호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은 실제 상환금에서 대부액을 뺀 액수로 실질적으로 1926년도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대부총액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환율은 60.9%에 해당하여 8년 동안의 장변으로 인한 손해가 막대한 것을 볼 수 있다.

2) 보증인과 거래대상

『각인봉급장』에서는 保證, 保人, 保 등을 통해 보증인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당과 관련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장변 거래 98명 중 보증인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18명이다. 보증인을 세운 채무자의 원금은 4엔부터 100엔까지 다양하므로 대부액의 크기와 보증인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다. 다만, 대부분 보증인을 세운 채무자의 지역이 교동이라는 사실은 주목된다. 문진호의 부인 월성 손씨가 동래장시가 열리는 지역과 인접한 동래 복천동에 학사를 마련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⁴²⁾ 즉, 남평 문씨 가문이 동래읍시장을 이용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과의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환금을 제대로 받은 경우가 4건에 불과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장변 거래대상 중 출신 배경을 알 수 있는 인물로는 먼저, 朴夏實(1861~?)이 있다. 그는 將官廳 天總과 把總을 지냈으며 1921년 4월 동래 기영회에 입회한다. 동래기영회에서 1937~38년도 재정임원인 公員을 담당했으며 승의계 재정을 맡기도 했다.⁴³⁾

다음으로 文福淑은 일신여학교를 다녔으며 3·1운동에 가담하였다.⁴⁴⁾ 근대적 기독교 여성교육기관인 일신여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고 초기 신여성으로 활동하였다. 부산지역 신여성들의 대부분이 일신여학교 출신이었고, 교회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여성들은 주일학교 교사와 전도사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황해

42) 이훈상·손숙경, 앞의 2017 책, 227면.

43) 손숙경,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경제기반」, 『석당논총』 68, 2017, 230~234면.

4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9,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도에서 대흥수가 일어났을 때, 부산진교회 남녀찬양대와 부산일보 부산지국의 주최로 수재구제음악회가 개최되었는데 문복숙이 참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金基淑은 釜山女子青年會 부회장을 맡았다. 부산여자청년회는 1921년 6월 13일에 부산진 구락부에서 창립하였다. 조직 직후 부산진 구락부의 후원으로 부산진 구락부 회관 안에 釜山鎮女子夜學을 개설하였는데, 일신여학교 3회 졸업생인 김기숙은 당시 일신여학교 교사로서 학생지도를 맡았다.⁴⁵⁾ 앞서 살펴본 일신여학교 학생 문복숙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金學用은 부산청년동맹회관 내에서 제2회 정기대회를 열었는데 이 때 被選되었다. 吳泰根은 正進青年會 소속이다. 정진청년회는 1925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실력양성론적 청년운동의 극복과 대중 본위의 사회운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어 12월 군 단위 청년운동조직인 동래청년연맹의 결성되었는데⁴⁶⁾ 이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⁴⁷⁾ 또한 신간회 기장지회를 설립하고자 준비위원을 맡았고 이후 部員으로 활동했다. 이후 기장면장에 공선되기도 한다.⁴⁸⁾ 이처럼 신여성을 비롯한 사회운동가들을 비롯한 지역의 명망가의 거래가 있었음은 흥미롭다.

한편 孫斗萬은 1928년부터 1932년 동안 10번에 걸쳐 장변을 이용하였다. 그는 동래연죽직공친목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⁴⁹⁾ 남평 문씨 집안은 연죽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바로 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煙竹掌記』 등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연죽과 그 가격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듯 이 집안은 연죽을 장만하여 객주를 통해 위탁 판매를 하였고 여기서 동래연죽직공친목회 소속 손두만과의 인연을 통해 지속적인 거래를 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역시 제한된 사례지만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들과 거래를 한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며 동시에 명망있는 인물도 일상생활에서 대부에 의존하

45) 이승희, 「日帝下 釜山地域의 女性團體에 관한 研究-1920년대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3, 국사편찬위원회, 1998, 251~252면.

46) 김동철·강재순, 「1920~1930년대 초 기장지역 사회운동」,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6, 141~142면.

47) 나철희, 「1920년대 東萊地域 青年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關한 一考察」,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6, 25~26면.

48) 『朝鮮日報』, 1929.4.18.

49) 『中外日報』, 1930.5.10.

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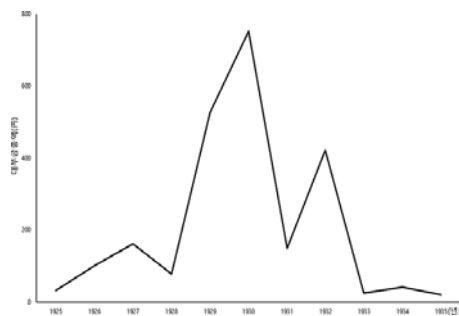
2. 대부 행위와 지주·농장경영

한말 고리대 경영과 지주경영은 상호 그 자본을 전용하면서 확대되었고 이것은 당시 지주층 대부분의 일반적인 축재수단이었다. 남평 문씨 가문도 이와 유사했다고 생각되는데, 삼양상회 파산 이후 지주 경영과 더불어 농장의 운영에 집중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秋收記』(1925), 『庸人記』(1930)의 장책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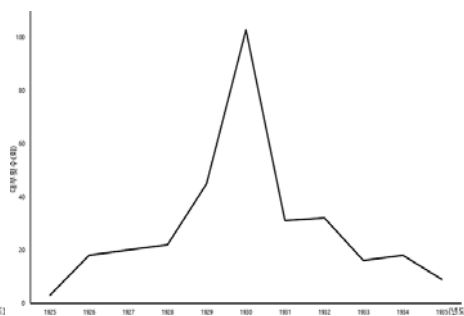
한편 『구산기』 대부거래는 문진호와 첫째 아들 文義淳(1903~1983)에 의해 운영되었다.⁵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대부거래의 다수가 자신의 소작인들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구산기』의 일반 대부거래와 지주경영 및 농장경영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 대부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부거래와 경제 추이

『구산기』의 대부금 총액과 대부횟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 12>와 <그림 13>을 살펴보면 1928년에서 1930년에 걸쳐 상승세가 큰 폭을 이룬다.⁵¹⁾



<그림 12> 『구산기』 대부금총액



<그림 13> 『구산기』 대부횟수

50) 문의순의 대부거래 사실은 宋汶洙, 文泰得, 李基洛과의 거래를 통해 확인된다. 『구산기』에는 이들과의 거래에 각각 ‘義淳捧無利追入’, ‘義淳無利子持追后計入’, ‘義淳便入’이라 기재하고 있다.

51) 다음 그래프는 현물 거래 19건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당시 시대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본은 1927년 쇼와 금융공황으로 약 10%의 보통은행이 문을 닫고 다른 은행과 합병되었다. 그리고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시작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일본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때 은행들은 대출을 제한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 소수도 일본인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소농층들은 사적고리대를 이용해야했다. 사회 도덕적 입장에서 고리대는 통렬히 배척해야 할 죄악으로 여길 수 있지만, 금융 방면으로부터 소외된 소농층의 입장에서는 고리대가 필요불가결 했을 것이다.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대공황과 농업공황으로 조선의 농가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즉, 조선의 농촌사회는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공황의 여파로 미가의 가격이 곤두박질 쳤으며 소작농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작료를 지불하는 벼의 환산가치가 낮아진 이유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작농들은 賃金과 비료에 현금지출을 많이 하였고, 현물지출은 소작료가 가장 많았다.⁵²⁾ 이를 통해 현금지출은 營農費에 투자하고 생산한 벼를 소작료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지주 경영과 농장 경영

남평 문씨 가문은 삼양상회를 설립하는 등 상업 자본으로 전환을 꾀하였으나 경제 불황으로 사업에 실패한 후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지주·농장경영이라는 새로운 전략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대여한 전답을 소작인별로 구분하여 소재지와 면적을 결부 및 두락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수확량 및 영농자금, 추수 비용 등을 기록한 『추수기』와 사람을 고용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한 『용인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구산기』의 대부거래 중 ‘肥料’, ‘肥料 硫安’ 등의 이유로 대부금을 빌려간다. 이에 해당 하는 인물은 文學得, 文仁得, 梁達龍, 宗伊, 丁德五이다. 이 중 종이와 양달룡은 『추수기』에도 이름이 보이며 특히 양달룡은 『丁卯秋收記』의 「肥料換租記」에 이름이 보인다.⁵³⁾ 이를 통해 소작인은 대부를

52) 이송순, 「1920~19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 분석」, 『사학연구』 119, 한국사학회, 2015, 316~319면.

53) 이훈상, 앞의 2017 책, 282면.

하여 영농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正租, 租 등을 내고 금전을 대부해 가거나 반대로 정조와 조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구산기』에서 대부금을 상환할 때, 현금거래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대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품으로 갚는 방법으로 ‘秧’, ‘傭’, ‘畚畧’ 그리고 ‘雇稅’ 등이 보인다. 文大旭의 상환내용을 보면 1932년 6월 ‘秧三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양은 모내기를 의미하며 이를 3일간 하여 90전을 갚았다. 金長述도 1932년 6월 ‘秧半日’ 기록을 보아 문대욱과 함께 모내기를 했으나 그는 만나절만 하여 15전을 갚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32년 당시 하루 일당이 30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朴東守의 1937년 11월 30일 상환내용을 보면 ‘傭二日半’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틀 하고 만나절 동안 품으로 갚았다는 뜻이다. 박동수는 품으로 75전을 상환했으며 앞서 살펴 본 모내기와 일당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답간은 논에서 김을 매는 것을 말한다. 朴更達은 1929년 3월 1일 답간을 하였는데 2엔으로 쳐주었으며 박동수는 1929년 4월 27일 답간으로 2엔 1전으로 상환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모내기와 품과는 달리 일수가 적혀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보다 높게 값을 쳐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세를 통해 대부금을 계산한 경우도 있다.⁵⁴⁾ 다음으로 현물을 통해 상환하는데 그 물품으로 租, 正租, 明紬, 瓦, 大口魚가 있다. 대부금을 명주로 대신 상환한 인물은 박경달과 安正五이다. 당시 양잠은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입이 지주농가보다 많았다고 한다.⁵⁵⁾ 박경달의 거래를 살펴보면 1931년 6월 1일 명주 2필을 3엔 6전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당시 명주 1필은 1엔 8전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득은 현금대신 대구어 2尾(마리)를 54전에 상환하였다. 대구어는 당시 기장지역의 주요 토산품이었다.

또한 소작인들과의 대부거래는 이자와 수익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대부한 금액과 변제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대부금 자체에 이자가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지주와

54)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梁達龍, 文貴哲, 金學用, 梁更守, 千一貫, 金述伊, 宋且花, 宋三律, 金奉用, 丁德五, 趙英贊, 丁連浩이다. 이 중 梁更守는 『용인기』에서 그 이름이 확인된다. 이훈상, 앞의 2017 책, 308면.

55) 이송순, 앞의 2015 논문, 303면.

소작인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살펴보았을 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자를 대신할만한 무언가를 지불했을 것이라 판단된다.⁵⁶⁾

이와 같이 『구산기』에서 일반 대부거래를 한 사람들의 다수는 문진호가 경영했던 농장의 소작인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거주 지역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추정이 더욱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구산기』 거래지역 분포

지역		인원	지역		인원
機張郡	※ 蓮龜	8	東萊邑	校洞	8
	※ 瓦餘	20		久瑞	1
	※ 熊川	36(34)		鳴藏	1
	耳谷	6		伴如	1
	龍川	1		釜谷	2
	※ 長田	9(8)		書洞	1
	古村	2(1)		仙洞	1
	九七	5		壽安洞	1
	萬花	1		壽民洞	1
	機張鄉校	1		余古	1
	斗田	1		鄉校	1
	※ 栢吉	1	蔚州郡	新庚	1
	送亭	1		冠洞	1
				檢丹	1
梁山	余洛	1			
慶州	栗洞	1			

※는 문진호 거주지 미동과 인접한 마을들이다.

<표 5>에서 보듯이 대부거래를 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분석하면 경주, 울주, 동래, 기장 등지로 경상도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각지의

56) 김재호, 「농촌사회의 신용과 계: 1853~1934」,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300-331.

사람들이 『구산기』의 대부장부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지주경영의 양상을 살펴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더 잘 이해된다. 『추수기』에 의하면 남평 문씨의 전답이 기장의 동리와 서리 및 중리에 산재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를 기장의 경계를 넘어 울산에도 존재하고 있었다.⁵⁷⁾ 따라서 『구산기』 속의 채무자 중 상당수는 『추수기』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로는 그 행적을 찾기가 어렵다.

3) 금융기관과 조합의 활용

문진호는 동래은행과 금융조합에서 起債한 사실이 확인된다.⁵⁸⁾ 이는 총독부에서 실시한 산미증식갱신계획으로 ‘低利資金’을 대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920년부터 일본은 자국의 식량문제를 조선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많은 일본인 농사이주민(소작농)들이 조선으로 이주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적은 사업비의 증가, 금리 고율 등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식민당국은 1926년 12개년 기한으로 ‘산미증식갱신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의 주목적은 대장성 예금부의 저리자금을 공급하여 조선 내 농업자본가 또는 지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다.⁵⁹⁾ 그리고 이때 총독부는 販賣肥料의 소비를 억제해 오던 것을 산미증식갱신계획을 계기로 농사개량 저리자금의 일부를 비료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販賣肥料 소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하였다.⁶⁰⁾

이러한 상황 속에 문진호는 1931년과 1933년 동래금융조합 대표를 맡았다. 이는 1930년대 전개된 ‘농촌진흥운동’과 일정부분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은 自作農創定을 위한 토지구입자금과 고리채 상환을 위한 구채상환자금이

57) 이훈상, 앞의 2017 책, 268면.

58) 『구산기』에 기재된 기채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래은행은 1927년 1건 1928년 7건 총 8건으로 한 달 이자는 3.8%이며, 금융조합은 1927년 1건, 1935년 1건 총 2건으로 日別 4전이다. 日別은 100원에 대한 하루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日別 5전은 日利 0.05%에 해당하며 연리로 환산하면 365일 기준으로 18.25%이다. 최재성, 『식민지 조선의 사회 경제와 금융조합』, 경인문화사 2006, 63면. 문진호가 거래한 금융조합은 日別 4전의 이자율로 연리로 하면 14.6%로 저리에 해당된다.

59) 정병욱, 『한국근대금융연구』, 역사비평사, 2004, 217면.

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 · 농촌 100년사』 상, 농림부, 2003, 71면.

다.⁶¹⁾ 부채정리사업의 내용 중에는 금융조합의 저리자금으로 고리대를 대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고리대의 대부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농가의 영농·생계 전반에 대한 郡面과 금융조합의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주된 농민통제수단이었다.⁶²⁾ 금융조합은 대지주와 연락하면서 소작권의 유지 획득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농촌진흥운동과 관련하여 금융조합이 담당하고 있던 부채정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소작권의 안정이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주가 소작인에게 農糧 혹은 비료자금을 대부할 때에는 미리 금융조합과 연락 협의하거나, 금융조합이 소작농에게 비료자금을 대부할 경우 소작인이 조합원일 경우에는 소속 지주에게 자금대부의 보증을 서도록 협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문진호가 금융조합 대표를 맡은 이유는 농민들에게 자금을 대부해주고 농민들을 통제함으로써 당시 농장경영의 운영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한말 식민지기 동래군 기장 미동 남평 문씨 가문의 대부장부 『各人捧給帳』과 『九山記』에 주목하여 대부 행위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 중심은 대부장부를 작성한 문진호로서 그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조선 후기 주변부였던 기장지역에서 개항 이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향반가문의 실태를 분명히 하는 한편 식민도시의 배후지로 변화하는 새로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려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남평 문씨 가문의 경제활동의 충위를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토지를 집적하기 시작하는 1850년대부터 1919년 삼양상회 설립 이전까지 시기이다. 이 시기 남평 문씨 가문의 사회경제활동을 주도한 인물은 문진호이다. 그는 토지를 매매하는 적극성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61) 최재성, 앞의 2006 책, 138-141면.

62) 김영희,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32면.

경영 다각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진호는 객주들과 유통망을 형성하여 교류하면서 이들의 상업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대부업과 금융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부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에는 동생 문창호와 먼 친척인 문정호 등 문중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때 작성된 대부장부 『각인봉급장』은 당시 이들이 안정을 담보로 한 대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 시기는 위탁판매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양상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1919~1920년이다. 문진호는 대부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본을 상업자본으로 운영하여 1919년 초 삼양상회를 설립하였다. 자금조달이 상회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주로 사용하던 대부장부는 더 이상 작성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삼양상회는 1920년대 초 한국을 뒤덮은 경제 불황의 여파 속에 문을 닫았고, 문진호가 그 뒷수습을 맡았다.

세 번째 시기는 삼양상회 파산하고 이후 새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하여 지주경영과 농장경영에 주력하는 1920년 이후이다. 이 시기는 문진호가 1900년대 초부터 축적한 경험을 살려 자식들과 분업하며 더 체계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구산기』의 작성으로 나타났다. 『각인봉급장』과 비교하여 『구산기』는 여러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먼저 대부 활동은 장남 문익순이 주도하는 일반 대부거래와 차남 문재순이 주도한 장변거래로 크게 대별된다. 특히 장변거래는 이전에 대부거래와는 다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특성을 보이며 이는 대부금 운영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친족이나 지인과의 동업 형태가父子의 운영으로 전환되며 가족사업으로 바뀌는 모습도 주목된다.

한편, 『구산기』는 대부 활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평 문씨 가문의 지주경영과 농장경영의 실태도 보여준다. 당시 채무자들은 경주, 울주, 동래, 기장 등 경상도 각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추수기』나 『용인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남평 문씨 가문의 토지가 기장의 경계를 넘어 울산에도 존재했다는 사실과 채무자들 중 다수가 소작인으로 남평 문씨 가문에서 영농비를 대부하여 사용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진호와 거래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양자의 거래가 순수한 경제 관계 이상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명인사의 일상적인 대부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일상적인 행위로, 현재 사회에서 고리대가 가지는 가치판단과는 다른 지점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가문은 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 하였

으나 대부 행위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개항 이후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배후지 향반의 모습을 보여준다.

본고는 남평 문씨 가문의 대부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주 및 농장 경영으로써 경영의 다각화에 대한 것은 차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各人捧給帳』 『九山記』 『煙竹掌記』 『秋收記』 『庸人記』 (남평 문씨 문백섭 소장)

『松鶴 辛弼銖 自敘傳』

『中外日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開闢』

김재호, 「농촌사회의 신용과 계: 1853~1934」,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김영희,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南平文氏東萊北面門中, 『文淵亭과 漢詩選 400여 수의 再照明』, 南平文氏東萊北面門中, 2017
부산광역시 동래구, 『東萊區誌』, 부산광역시 동래구, 1995

손숙경·유현, 『조선후기 기장 웅천의 남평 문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 석당학술원, 2009

에드워드 와그너 저, 이훈상·손숙경 역,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이명휘, 「금융제도의 형성과 발전」, 이대근 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출판, 2005

이훈상, 『19세기 기장군 미동의 남평 문씨 향반 가문의 경제 기반과 한말 식민지기 새로운 경제 활동』,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7

이훈상·손숙경, 『조선후기 이후 식민지기 기장군 미동의 향반 남평 문씨 가문과 이들의 사회 문화적 위상』,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7

정병욱, 『한국근대금융연구』, 역사비평사, 2004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철마면지편찬위원회, 2007

최재성, 『식민지 조선의 사회 경제와 금융조합』, 경인문화사,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상, 농림부, 2003

김 승, 「한말·일제하 동래 지역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지역과 역사』 6, 부경역사연구소, 2000

김건태, 「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동-한말 일제하 나주 박씨가의 농업경영」, 『대동문화연구』 4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김동철, 「18세기후반-20세기전반 기장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역사문화학회, 2010

_____, 「東萊銀行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9, 부경역사연구소, 2001

김동철·강재순, 「1920~1930년대 초 기장지역 사회운동」, 『한국민족문화』 8,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6

나철희, 「1920年代 東萊地域 靑年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關한 一考察」,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6

- 류승렬, 「조선후기 객주의 성장, 분화와 상업수세의 변천 추이」, 『강원사학』 18, 강원사학회, 2002
- 박천우, 「韓末 日帝下の 地主制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3
- 서길수, 「開港後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研究(Ⅱ)」, 『논문집』 15, 서경대학교, 1987
- 손숙경, 「식민지기 醫生 김태일의 생애와 先代의 동래 이주」,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2018
- _____,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경제기반」, 『석당논총』 68, 東亞大學校 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2017
-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향도부산』 12,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1995
- 이송순, 「1920~19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 분석」, 『사학연구』 119, 한국사학회, 2015
- 이송희, 「日帝下 釜山地域의 女性團體에 관한 研究-1920년대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3,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이영훈 · 조영준, 「19世紀 末-20世紀 初 서울 金融市場의 特質-南大門 一帶의 ‘日收’ 金融을 中心으로」, 『경제논집』 44, 서울대 경제연구소, 2005
- 전우현, 「日帝強占初期 判例에 나타난 상행위(객주업)상 高利貸의 역사적 평가」, 『법사학연구』 35, 한국법사학회, 2007
- 조영준, 「경제사로 읽는 사금융과 이자제한」, 『경제교육』 128, 2014
- 차철욱,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9, 부경역사연구소, 2001
- _____, 「일제강점기 부산상업[공]회회의소 구성원의 변화와 ‘釜山商品見本市」, 『지역과 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2005
- 홍성찬, 「19세기 · 20세기 초 향리층의 사회경제 동향-곡성 정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24, 경제사학회, 1998
- _____, 「일제하 서울 종로상인의 자산운용-1910,20년대 수납상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7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 _____, 「韓末 · 日帝下の 地主制 研究-寶城 梁氏家の 地主經營과 그 變動」, 『동방학지』 11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1
- _____, 「韓末 · 日帝下の 地主制研究-江華 洪氏家の 秋收記와 長冊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33, 한국사연구회, 1981
- 홍순권, 「1920~1930년대 동래의 지방선거와 조선인 당선자들」, 『한국근대사연구』 5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A Study on Loan Activity of a Yangban Landlord of Hinterland of Busan Cit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Kang, Ju-seong

As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loan behavior of the 'Nampyeong Moon Family(南平 文氏)' of Gijang(機張) coun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early 20th century modern Korea and reveal its details as well its implications.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discovery of the loan books called 『*Individual Pay Books*(各人捧給帳)』 and 『*Loan Account Records*(九山記)』, which were passed down within the family for generations.

The Nampyeong Moon family has endeavored in land accumul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center of their loan activities was Moon Jin-ho(文鎮鎬, 1883~1960), and he ran his business jointly with his younger brother Moon Chang-ho(文昌鎬, 1895~?) and a distant relative Moon Jeong-ho(文訂鎬, ?-?).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y founded Samyang Corporation(三洋商會).

After the bankruptcy of Samyang, Moon Jin-ho sought a new strategy and focused on the farm-holding management, and managed the loan business more systematically with his children through division of labor. Meanwhile, a change in the loan business occurred as well. With the launch of high-interest loans, his second son Moon Jae-sun(文載淳, 1911~1945) began running this business. Meanwhile, the conventional loan business was managed by his first son Moon i-sun(文義淳, 1903~1983). The management style was effectively changed from a partnership with brothers or relatives to one run by a father and his sons.

However, the loan business they jumped in late was not profitable enough and had a limit in accumulating wealth. It often was a money-losing business. As the family continued to struggle with the business, they subsequently focused more on the farm management business while slowly divesting from the loan business.

한말 식민지기 東萊郡 機張 薇洞 南平 文氏 家門의 대부 행위와 그 내용

Key Words : Nampyeong Moon family, 『*Individual Pay Books*』, 『*Loan Account Records*』, Moon Jin-ho, usuries

